

2023 설날가정예배



조상의 덕을 기리며 예배드립니다. 지난 일 년을 감사하고 새해의 복을 간구합니다.

개회 / 인도자,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 다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 다같이,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1.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2.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3.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4. 땅돌아 바다야 많은 섬돌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 / 말은이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의 반석위에 든든히 서가는 가정,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칭찬받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2023년에도 말씀이 삶이 되는 복을 주옵소서.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온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경복독 / 말은이, 시편 1편 1~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설교 / 말은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민족의 명절 설날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 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마다 받고 싶은 복이 다양각색으로 있겠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받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복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그만한 자격과 태도를 가졌는지 살펴보고 올 한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줄을 잘 서야 성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맥, 학연, 지연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말일 것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성경은 사람이 모두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본다면 악인, 죄인, 오만한 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뒤에 줄을 선다는 통속적인 처세는 복에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은 못된 꾀를 내고 편법을 써서 넓고 편한 길로 가고 자기만을 과시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줄을 잘 서려는 것이 세상의 속된 방법입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쟁과 승리에 대한 욕심에 자유로움과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와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말로 바꾸면 줄을 서되 하나님께 줄을 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줄을 서는 방법이 말씀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역사를 살펴야 하고 그 분이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계시를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의 속된 꾀가 아닌 거룩한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생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써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여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2023년 우리 말씀삶공동체의 표어를 생각합시다. “말씀묵상이 길입니다!” 우리가 서야 하는 줄이 바로 여기입니다. 올해 내내 깊은 말씀묵상과 그 은혜를 나누는 삶, 거기에서 넘치는 복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넘치도록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 설교자

덕담을 나누는 시간 / 가족 중에

지난해의 좋은 일을 나눕시다. 새해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나누어도 좋습니다.

찬송 / 다같이,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1.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니
2.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3.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맘에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후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폐회 / 다같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